

## 여대생의 목표중심적 가치지향과 금전사용양식이 금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 은 실(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황 덕 순(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출기록과 저축이 포함된 예산생활을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으로 보고,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목표중심적 가치지향, 금전사용양식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금전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금전사용양식을 알 수 있으며, 목표중심적 가치지향이 금전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 간접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목표중심적 가치,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구성하여 2000년 3월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여대생에게 배포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541부의 질문지가 분석되었다. 자료분석은 SA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Cronbach's  $\alpha$ ,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금전사용양식 가운데 안정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소득수준과 학년, 목표중심적 가치지향으로 자신의 가정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목표중심적 가치지향이 강할수록 금전을 안정성의 표시로 가치화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과시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용돈액과 가정소득수준, 목표중심적 가치지향으로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가정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목표중심적 가치성향이 낮을수록 지위나 평판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데 관심을 갖으며 금전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비금전가치형은 가정소득수준과 목표중심적 가치에 따라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서 자신의 가정소득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목표중심적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금전을 사용하는데 있어 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무관심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과 월용돈액, 가정소득수준, 목표중심적 가치지향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월용돈액이 많을수록 가정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목표중심적 가치성향이 낮을수록 금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금전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2. 금전관리행동의 하위영역 가운데 계획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금전사용양식 중 안정형(+)과 무관심형(-)이었으며,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안정형(+), 무관심형(-), 비금전가치형(+), 과시형(+),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안정형(+), 가정소득수준(+), 학년(+), 과시형(+), 무관심형(-)이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정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저축행동을 많이 하였다. 금전사용양식 가운데 안정형의 성향이 강할수록 계획, 실행, 평가, 저축의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금전에 대해 무관심할수록(무관심형) 합리적인 금전관리수준이 낮았다. 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수록(비금전가치형) 실행과 평가행동 수준이 높아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은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금전사용양식을 경유한 간접적인 효과경로가 발견되어, 목표지향적인 가치를 지닐수록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을 이끄는 금전사용양식인 안정형과 비금전가치형의 성향이 높았고,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과 부적 관계가 있는 무관심형의 성향은 낮게 나타났다.